



영일만 르네상스 원년

Green Way 2010 -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
우리, 함께 가자, 이길을!

열린 포항



일출 日出

만선의 꿈을 펼치며
 닷을 올리던 새벽

내가 태어나던 해 지었다는
 고택 앞마당까지 밀려 온
 파도에 꿈을 실어 동해로
 배를 밀곤 하던 아버지

걸쭉한 기명물로 채송하며
 봉선화, 살구나무를 키우시며
 해당화처럼 웃으시던 어머니

손때 묻어 더 윤이 나는 그릇이며
 헛간에 매달려 호명을 기다리는
 왜스랑 호머 갈구리들

신항만 도로확장공사에 뼈를
 묻어야 할 추억 한 채
 주름진 기왓장에 내린 별빛
 스러지던 날, 만선을 꿈꾸던 바다는
 크고 환한 불덩이 해산하고 말았네

최귀희 시인

경북 청도출생, 2002년 포항문학 신인상, 대구시인회교 수강, 경주대 사회교육원수강,
 미술심리치료사, 기독 상담사



» 04



» 08



» 10



» 16



» 20

2010 1 CONTENTS

- 04 Green way 2010 | 영일만 르네상스 원년
- 06 신년기획 |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 08 신년특집 ① | 영일만 호랑이띠들의 새해 소망!
- 10 신년특집 ② | 나눔의 현장을 가다
- 12 포항칼럼 |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
- 14 우리고장전래동화 | ⑪ 청해장수와 영일만
- 16 문화마당 | 차향이 있는 음악회, 연극 고추장떡볶이
- 18 포커스 | 미술관 관람법
- 20 시정브리핑 | 영일만항에 연안피터션 '그린스타호' 첫입항
- 23 의정브리핑 | 포항시 2010년도 예산1조 403억원 확정
- 24 포항레이더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 26 ♥POHANG | 재일교포 이부철 포항시 홍보대사 선행
- 27 지상갤러리 | 이중길 · 부자마켓, 2009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홍보담당관 최만달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이명자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10년 1월 25일 (통권 78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서
 G20 성공기원 플래시몹 행사
 사진 • 포항시청

백호의 기상으로 '그린웨이 Green Way'를 떠나자 영일만 르네상스로 향하자



2010년 백호의 기상을 품은 태양이 한반도의 최동단 호미곶에서 떠오른다. 마치 52만 포항시민의 꿈을 담은 '영일만 르네상스'의 전도를 축하라도 하는 듯 한민족 영욕의 오천년 역사를 지켜온 영일만 앞바다를 저토록 붉게 물들이며 솟아 오른다.

포항시승격 60년을 역사 속으로 넘기는 순간 다시 60년 만에 찾아온 상서로운 백호의 해. 흡사 영일만 르네상스를 위해 60년을 기다린 백호처럼 뿜어내는 기상이 영일만을 지나 저 넓디넓은 대양으로, 대륙으로 짙 짙 뻗어나간다.

2010년은 '영일만 르네상스 원년'이다. 52만 포항시민은 이제 백호의 기상으로 영일만 르네상스로 향한 Green way를 달린다. 인간과 환경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곳, 인간과 문화가 더없이 풍요로운 곳, 모든 생명이 존엄한 공동체... 이곳이 바로 영일만 르네상스가 열리는 포항이다.

이렇게 포항은 꿈이 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런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에 52만 포항시민들은 신명을 다한다. 포항은 빛과 희망의 도시이다. 빛은 빠르고 거침이 없다. 이 기상, 이 신명이라면 포항의 희망도 빠르게 거침없이 실현될 것이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인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은 고난이지만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포항의 위상을 바꿀 일과 고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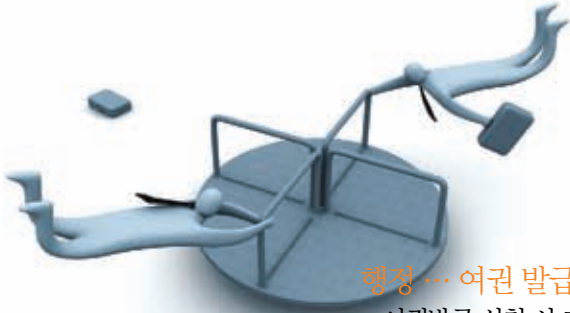
52만 포항시민들이여! 올 한해도 우리의 꿈을 향해 백호의 기상으로 일하자. '그대의 일을 좇으라. 일에 쫓기지 마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고 탈무드는 전한다.

- ① 백호의 기운을 품은 2010년의 첫 해가 웅장하게 떠오르고 있다
- ② 시민들이 호미곶면 해맞이 공원에서 2010년의 첫 해를 감상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변동내용 잘 살펴야

●●● '2010년 한국 방문의 해' 맞아 7월부터 우측보행이 시행된다. 올해는 또 입영부대 본인선택제가 폐지되고, 저신용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제도가 보완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권익도 보호받는다. 각 분야에서 폐지되는 제도와 신설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각 분야별로 변동되는 사항을 잘 체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 ... 여권 발급 때 지문 찍고 온라인 우표 부착 가능

-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단, 18세 미만 제외
-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2만5,000원으로 내리고 신용카드 결제 가능
- 5월부터 인터넷 통해 우표 출력, 부착 가능
-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 새 주소로 배달하는 제도 상반기 중에 시행

보건·복지 ...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인하

-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
-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 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 지원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
-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됨

교육 ... 3월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 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음
- 3월부터 매년 1회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실시
- 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

여성·노동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92만 8,860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자액이 7억 원, 무상지원 시설전환비가 2억 원으로 늘어남

교통 ... 우측보행 7월부터 시행, 개인택시 양도 상속 금지

-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
- 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 금지
- 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 무료시청각교육으로 바뀜
- 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 장내 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애고,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애짐
-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함

세금 ... 대형TV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국세 카드 납부 가능

-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 원이하와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
-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300만원임.
-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음
-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2012년 말까지 과세
-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단 지방 투자만 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짐

법무·병무 ...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최대 50%까지 깎아줌
-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앞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 시 대체복무 가능 =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택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음.
-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오른 5,000원 지급. 일반훈련은 9,000원 지급됨.

영일만 호랑이띠들의 경인년 새해 소망!

정원대 홍해읍 성곡리, 농업, 1950년생

30년째 벼농사에 종사하여 현재 자경 6,000평과 임대 40,000평의 벼농사에 종사하여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호랑이띠에 소망이 있다면 가족들이 건강하고,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딸과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바라고, 3년 연속 풍작으로 마음은 풍년이나 쌀값이 불안해 마음을 졸였으나 정부 비축미 추가 수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올해도 풍년이 들고 쌀값도 기대에 맞게 형성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홍해쌀전업연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건강과 농업인들의 희망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태웅 기북면 용기리, 자영업, 1950년생

1950년에 태어난 우리 호랑이띠띠는 6·25를 시작으로 격변의 시대를 지나온 터라 60년이 되는 올해 더욱 의미가 크다. 2010년에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지역 농민들이 풍년농사와 함께 근심 걱정 없는 풍성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좌절이나 절망 대신 희망과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홍보경 가사, 1974년생

처음 만났을 때 친구는 한 딸기 들국화 같았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친구의 얼굴엔 힘들고 거친 삶의 그림자밖에 없다. 새해엔 친구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빌어본다. 친구야 범처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자!



손외자 자영업 1962년

중앙상가 실개천이 조성될 때 육거리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같이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중앙상가는 포항 사람들의 고향이자 추억이며 향수다. 중앙상가 루미나리에 불빛 축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협찬함으로써 모처럼 몰려드는 인파로 인하여 추운날씨속에 마음이 따뜻해짐은 물론이고, 포항시와 중앙상가가 포항의 아름다운 곳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포항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을 만들며 살아갑시다.

손병혁 공무원, 1962년생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듯이 큰 것보다는 작지만 보람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술 한 잔 덜 마시기, 자녀와 대화하기,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올해 포항시가 「영일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터전을 마련하고, 호랑이 꼬리인 호미꽃의 기운을 받은 도시처럼 세계를 향해서 우렁차게 포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관 환호동, 은행원, 1974년생

로또 당첨!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로또 당첨의 행운이 백호의 기운을 받아 내게도 왔으면 한다. 허황된 꿈으로 보이겠지만 이 꿈의 설렘과 희망을 원동력 삼아 한 해를 더욱 열심히 살아갈 계획이다. 모든 호랑이띠들이 백호의 해 경인년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

최준혁 두호동, 영남대 3년, 1986년생

2010년 경인년의 소망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카다브라', 세부적으로 하나만 정하자면 '취직'이다. 모든 예비졸업생들의 소망은 취직이다. 물론 바란다고만해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기 위한 끈기와 집중력은 따라와야 할 것이다. 백호의 해 2010년, 부디 백호의 기운을 받아 86년생들을 비롯한 호랑이띠이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김지혜 대도동, 회사원, 1986년생

새해아침 엄마는 "지혜야 너의 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나의 해인 듯... 1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을 했고, 착한냄새가 나는 좋은사람도 만났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처음시작이 좋다. 내게 온 행복들이 오래오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들을 지키며, 많이 웃고 행복하게 보내야지. 2010년 어흥 호랑이 잘 부탁해요.

사진 왼쪽부터

정원대

정태웅

홍보경

손외자

손병혁

김영관

최준혁

김지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사랑 나누는 경로식당

● ● ● 포항 지역단체가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창포사랑나눔터 경로식당 외 8개소는 1일 평균 1,205명의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 경로당이용 어르신, 맞벌이가정 어르신 등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한 밥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으로 채우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가꾸고 있다 ● ● ●

경로식당명 운영주체	소재지	일일평균 인원수	좌석수	운영주기	설치신고	2009년 지원액(천원)
창포사랑나눔터 (창포종합복지관)	창포동	150	60	월~일(7일)	1999.05.15	68,040
장수식당 (학산종합복지관)	학산동	165	72	월~일(7일)	1996.02.28	76,140
북부나눔의집 (기쁨의 교회)	학산동	75	200	화,수,목(3일)	1998.11.02	15,120
노년의집	해도1동	120	108	월~일(7일)	1999.09.01	51,840
요안나의집 (죽도천주교회)	죽도2동	155	86	월~금(5일)	1994.05.19	54,900
만나의집 (기독교연합회)	대흥동	160	116	월~토(6일)	1988.10.12	66,330
홍해제일급식소 (홍해제일교회)	대흥동	120	134	화,수,목(3일)	2006.01.23	21,060
사랑나눔의집 (소년소녀가장후원회)	상대1동	130	155	화,수,목,토,일(5일)	2006.08.10	40,000
오천구정식당 (이웃사랑나눔봉사회)	오천읍	130	60	월~일(7일)	2007.07.23	40,000
계	9개소	1,205				433,430

- 1 대도동에 위치한 사랑나눔의 집
- 2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배웅을 받으며 경로식당을 나서고 있다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白虎)의 해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호를 상서로운 동물을 여겼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세계사의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벌써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기운의 저편에는 비상(非常)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9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2008년 평균 합계 출산율이 1.22명으로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4,875만 명으로 세계 26위이지만 오는

2050년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 명 감소한 4,234만 명으로 46위로 밀려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생산 활동을 떠받치는 25~49세 핵심노동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2011년 1,994만 명, 2025년 1,700만 명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면 핵심노동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복지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추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은 '강 건너 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현재 시점에서 출산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래서 출산 및 육아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거시적이고 중차대한, 그리고 절박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국가백년대계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당장 국가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겠지만 출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노출시킬 것이다.

이미 저출산을 경험했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좋은 지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가족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발상과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가 아이들의 '제2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적으로도 재앙이지만 기업에게도 존립의 문제가 된다. 당장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물론 노동력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는다.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저출산은 재앙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절박한 심정으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종족 유지에 있다는 진리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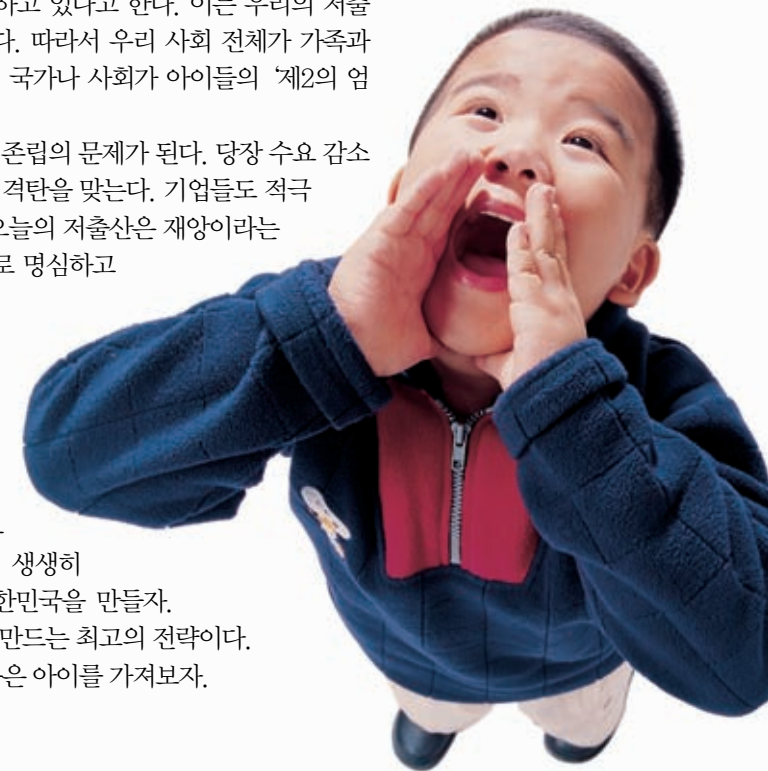
출산은 미래 포항,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력이자 희망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버린 오

늘의 농촌사회를 보면 내일의 대한민국 모습이 생생히 그려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포항과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것이 미래 포항의 희망이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의 해에 백호의 기상을 품은 아이를 가져보자.

2010년, 백호의 기상을 품은 아이를 갖자



글 | 김실근 · 전 포항시 북구청장



세상이

처음 열리고, 물과 물이 제자리를 나누어 가진 뒤에 생명체들이 각각의 모습과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며 살았지요.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양식을 서로 나누며 산짐승, 들짐승과 어울리며 살았지요. 참 평화로웠답니다.

시간이 자꾸 자꾸 흘러가면서 별의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활 잘 쓰는 궁사, 물고기 잘 잡는 어부, 힘이 센 장수 등.

그 때 일본 땅에 어리석은 장수 있었대요.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일본에서는 최고였지요. 더 상대가 없자 장수가 많이 살고 있다는 조선으로 건너왔답니다. 일본 장수는 조선 장수가 산다는 소문이 들리며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백두산 밑에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장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어요.

“여보시오, 여기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장수가 있다던데 아시오.”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는 노인을 붙들고 거만스레 물었지요.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노인은 턱짓으로 한 쪽을 가리켰어요.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거였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랑이 등에 느긋하게 앉아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소나 말을 부리는 것만 보았던 일본 장수는 걸음에 날 살려라 하면서 달아났어요.

일본 장수는 멀리 전라도에 힘 센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또 들었어요. 전라도 넓은 들로 갔어요. 한 가족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수레에 곡식을 잔뜩 실었어요.

청해장수와 영일만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 서양화가



일본 장수는 이제 곧 소가 와서 끌고 가겠거니 하면서 줄음에 겨워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일본 장수 앞으로 뭔가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소가 아니라 작은 아이가 그 집채만한 수레를 끌고 날듯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잠깐, 멈춰라.”

일본 장수는 턱하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수레를 끌던 아이는 트악한 눈으로 장수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최고의 장수다. 조선 최고의 장수를 찾아 헤맸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구나.” 일본 장수는 팔을 걷어붙이며 싸울 자세를 취하였다.

“아저씨! 장수는 뭐고, 최고는 또 뭐예요?”

“피할 생각을 마라. 너를 찾아 조선을 다 뒤졌다고.”

그 때 뒤따르던 가족들이 앞으로 나섰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왜, 이러시오?”

“저 장수와 힘을 겨루고 싶소.”

할아버지가 나서며 조용히 타일렀어요.

“장수라니, 자세히 한 번 둘러봐요.”

일본 장수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들판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모두 무거운 짐수레를 종잇장처럼 다루고 있었답니다. 일본 장수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다시 보았어요. 온유한 눈빛이었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기품이 넘쳐흐렸어요.

일본 장수는 까불고 날뛴 게 부끄러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지만 힘자랑하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답니다. 만난 사람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뿐이었으니까요.

지친 몸으로 영일 운제산 봉우리에 닿았어요. 활짝 열린 동해를 바라보고 있자니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가족들을 뺑개치고 힘자랑하러 돌아다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 노인이 수염을 날리며 서 있었어요. 눈빛은 혜성같이 빛났고, 팔다리는 붉은 구리와 철을 둘러놓은 것 같았어요.

“그대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장수인가?”

“그렇소, 노인장은 누구요?”

“이 나라 방방곡곡을 힘자랑하러 다니는 왜인이 있다가에 얼굴이나 볼까 했더니 형산구 운제산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도대체 뉘시기에 ……”

“나는 창해 역사 이니라.”

창해 역사는 말을 마치고는 썩웃었어요. 일본 장수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여유를 주지 않고 창해 역사의 가슴팍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창해 역사는 슬쩍 몸을 비키며 일본 장수의 공격을 피하였어요. 잡으면 피하고, 차면 막고, 싸우기를 한나절이나 끌었어요.

창해 역사와 일본 장수가 내딛는 자리마다 구멍이가 생기고 산은 허물어졌어요. 운제산 주변은 바람과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슬쩍 피하기만 하는 창해 역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장수가 도망을 치려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고는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손을 짚었는지 그 곳이 그만 움푹 꺼지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닷물이 밀려와서는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만들었답니다.

일본 장수는 넘어진 채 창해 역사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조선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문득 그들 모두가 장수였다는 생각이 뒤통수를 쳤어요.

겨루지도 않고 자신을 물리쳐 버린 조선의 일하는 백성들이 진정한 장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일본 장수는 창해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하게 굴었던 일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으로 창해 역사를 받들겠다고 하였대요.

그 약속의 표시로 운제산 꼭대기에 큰 바위를 옮겨 놓았답니다. 그 바위가 대왕암이랍니다. 또 일본 장수가 엎어지면서 손을 짚는 바람에 패인 구멍이가 바로 영일만이 되었지요.



[행사]

»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일 시 : 1월 27일(수) 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프로그램 : 캐논/파헬벨, 세 개의 짧은 곡 외/이베르

» 향기로 가득한 민화 「일상의 관조」

- 일 시 : 2월 18일(목)~3월1일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주 관 : (주)OCI
- 개 막 식 : 2월 18일(목) 시간 미정

»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일 시 : 2월 24일(수) 1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프로그램 : 그리운 고향, 스위스/Abel Baer
귀여운 꼬마/arr. Bradley Ellingboe

» 시향 정기연주회 「셀룰로이드 음악」

- 일 시 : 2월 25일(목)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프로그램 : '헨리 5세' 모음곡/월트
바이올린 협주곡/월트
'돈 후안'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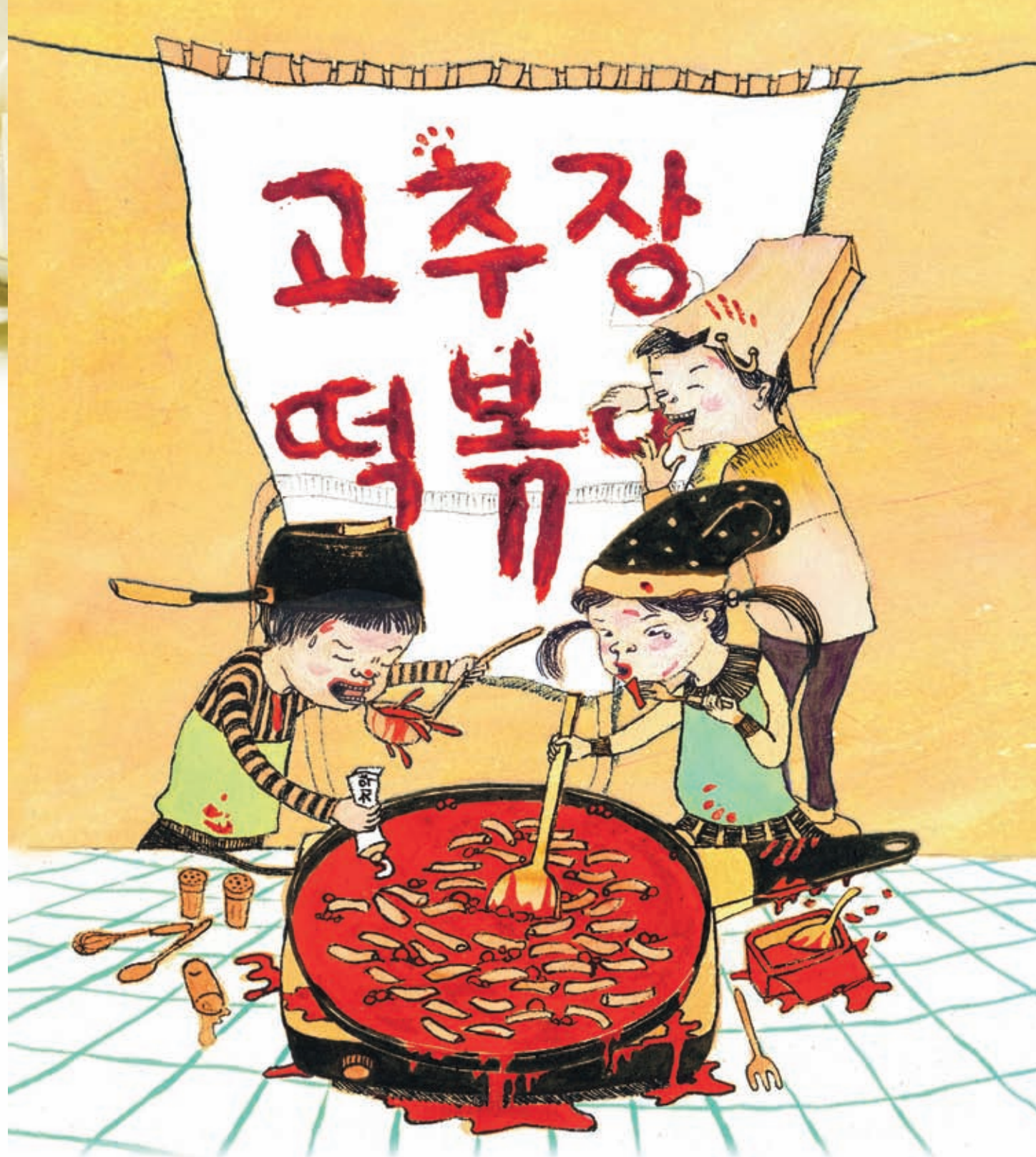
» 1월 포항시민교양대학

- 일 시 : 1월 27일(수) 14: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강 사 : 김준호 · 손심심(국악인)
- 주 제 : 김준호 · 손심심의 "소리아 놀자"
- 대 상 : 포항시민 누구나(무료)
- 문 의 : 포항 MBC(289-0122)
시 새마을평생학습과(270-2861)

» 원북추천도서 접수

한권의 책으로 독서문화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되는 포항, 책 읽는 포항으로 만드는 범시민 독서진흥운동인 One Book One Pohang의 추천도서를 접수 받습니다.

- 기 간 : 1월 20일~2월 20일(한달간)
- 대 상 : 국내작가(생존)의 도서
2000년 이후 도서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교양 도서
- 우 대 : 추천도서가 원북으로 선정시 9월 독서의 달 행사시 원북 및 기념품 증정



2010. 2. 21(일) 14:00, 17:00 22(월) 19:30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주최주관 포항시 · 포항MBC 원작 라이너 하크펠트 「Spaghetti mit Ketchup」 음악 비르거 하이만 번안/연출 김민기

음악감독/편곡 정재일 제작 극단 「학전」 출연 이성욱, 임호준, 황예영, 이보라 외 1명

관람료 R석 15,000원 S석 10,000원 유료문화회원/단체20인이상 20%할인

사소하지만, 알고 나면 백배 즐거워지는

미술관 관람법

| 글 |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 사진 | 정미향

지난 12월 22일 문을 연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개관기념전 《신철기새대의 대장장이》가 열리고 있다. 영일만 르네상스시대를 여는 첨병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미술관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자 출범한 시립미술관이 그 첫 걸음을 뒀 것이다.

미술관 개관으로 포항시도 바야흐로 미술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지면을 통해 미술관시대의 문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바람직한 관람방법과 관람예절'에 대해 먼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미술관 관람과 작품감상법

먼저, 미술관을 찾기 전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사전 정보와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작정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보다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 정보를 얻고, 필요하다면 작가와 작품에 관해 알아두면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된다.

미술관을 향할 때는 가급적 간편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긴 시간 동안 걸어야하므로 편안한 신발과 복장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유난히 다리,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진다. 이를 흔히 '박물관 피로'라고 한다. 많은 작품에 계속 신경을 집중하느라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다. 유난히 소리를 내는 구두나 슬리퍼도 다른 관람객의 집중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관람하도록 한다. 그래서 미술관은 폐관 1시간 전까지만 입장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같은 전시라도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보고 또 볼 때마다 미술작품은 다른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미술관에 입장하면 전시에 관한 안내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관람에 앞서 안내물을 참고하고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 관람순서 등을 결정해도 좋을 것이다.

불필요한 짐은 휴대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는 보관소에 맡긴다. 무겁

거나 거추장스러운 짐은 편안한 관람을 방해할 뿐 아니라 타인의 관람에도 방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작품을 훼손시킬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작품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아본 후에 관심이 가는 것을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한다. 모든 작품을 세세히 뜯어보고 기억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술관 전시는 대개 두 달 가까이 열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시와 작품은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 가다보면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작품이 마음에 와 닿는 행복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미술에 대해 새롭고 폭넓은 눈을 가지게 되고 자신만의 심미안이 깊어간다는 증거이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왕도나 정석은 없다. 그래서 설명문이나 안내원의 안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아울러 자신이 가진 미술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자꾸 물렁하게 풀어지도록 하는 평소의 관심과 공부도 필요한 것이다. 미술작품은 관람객을 향한 작가의 '말 걸기'이다. 사람간의 대화가 똑같을 수 없듯이 이해와 소통의 내용은 관람객마다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관람예절

그곳이 어디이든 공공장소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예절이 필요하다. 미술관도 다수의 시민이 찾는 공공장소이다. 더욱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느끼는 공간이기에 타인을 배려하고 예술을 아끼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예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른 무엇보다 작품을 잘 보존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하는 것이다. 우산이나 음료수 등 작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음식물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작품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 궁금한 마음이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번씩 수많은 사람이 만지다보면 결국 작품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에는 작품을 변질시키는 지방과 염분 등이 잔뜩 묻어 있다. 크게 보면 인류가 만든 소중한 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진도 허용된 방법으로만 촬영해야 한다. 요즘은 전시장 내에서도 스냅사진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관람객을 배려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플래시나 삼각대는 여전히 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플래시 불빛은 빛에 취약한 작품에 큰 손상을 주며, 삼각대를 이용한 정교한 촬영은 작품 저작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다른 관람객을 배려하고 방해하지 않는 태도이다. 큰소리로 떠들거나 전화를 받는 일은 고요하게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이의 행복한 순간을 깨는 일이다. 관람하는 동안 전화는 아예 꺼두는 것이 좋다. 동반한 아이들이 뛰거나 소란스럽지 않게 단속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철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눈총은 그 부모에게 밖에 돌아갈 곳이 없다. 자신의 사소한 편리와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이를 아랑곳 하지 않는 행동은 미술관이기에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부모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은 작은 감동을 준다. 그러한 경험과 기억은 아이의 삶과 오래오래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포항의 오늘을 이룬 '영희와 철수'를 이어, 포항의 미래를 열 다음 세대의 '영희와 철수'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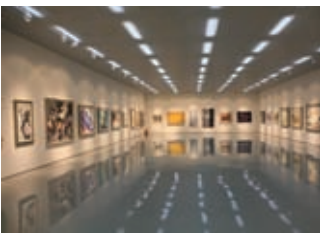
1 포항시립미술관 전경

2 포항시립미술관 내부 조형물 성동훈 <비밀의 정원>

3 초현 정두건관



2



3

붉은 해의 새해 첫 인사에 호미곶 10만 인파 "와~"



‘백호의 해’ 경인년(庚寅年)을 누구보다 빨리 맞이하고, 백호의 넘쳐나는 기운을 받기 위해 경인년 새해 첫날인 1일 영하의 추위와 강풍속에서 제1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린 포항시 남구 호미곶 광장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10만여명의 해맞이 관광객들이 몰려 복새통을 이뤘다.

지난 1일 0시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새해가 옴을 축하하는 뮤지컬 불꽃쇼가 터지면서 시민들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어 오전 7시쯤 1만명분의 떡국을 끓이기 위한 대형 가마솥에는 모락모락 피는 김이 새벽을 알리고 관광객들은 광장으로 삼삼오오 모여 들었다.

오전 7시 33분쯤 희망찬 새해를 밝히는 붉은 해가 얇은 구름 사이로 떠오르자 탄성과 환호와 함께 일제히 저마다 간직해 둔 새해소망을 빌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관광객 2,010명이 참가하는 G20 성공기원 플래시몹(Flash Mob)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플래시몹에 참가한 2,010명은 새해 첫날 호미곶 광장에서 가로 90m, 세로 30m 크기의 G20 글자를 만들고 깃발을 흔들며 군무를 펼쳐, 몰려든 해맞이객들로부터 박수와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날 밤부터 마련된 전야행사에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대북공연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등 ‘호미곶! 한민족의 희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이 마무리됐다.

특구 과메기 스티커 부착, 구룡포과메기 브랜드 가치 높여



포항시가 과메기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읍 일원이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타 지역 제품이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과메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한 품질의 과메기를 생산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특구지역내 생산된 제품 중 우수한 품질의 과메기 생산 업체를 엄선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특구지역 생산업체 중 건조과정, 가공과정, 유통과정이 위생적이며 소·포장 규격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생산업체에서는 과메기 포장박스 겉면에 특구지역 생산제품임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 생산관리 및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특구지역 생산과메기의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일만항에 연안피더션 ‘그린스타호’ 첫입항



12월 15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연안피더션 ‘그린스타호’의 첫입항식을 가지면서 포항 영일만항과 부산 신항을 잇는 정기항로가 개설됐다. 피더션이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와 인근 소규모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말하며, 이번 영일만항에 입항하는 연안피더션 ‘그린스타호’(7300톤급)는 한진해운신항만(주) 소유 선박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597개를 적재할 수 있으며 앞으로 포항 영일만항과 부산 신항간 122km(6시간 소유)구간을 매주 3차례 운항하게 된다. 이날 연안피더션 ‘그린스타호’는 오전 7시에 부산 신항에서 POSCO와 현대제철의 원료 공급업체인 모아스틸의 수입 철 스크랩 240TEU를 첫 선적하

고, 오후 3시 영일만항에 입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육상운송에 의존했던 포항지역들의 부산간 화물운송비용이 크게 절감되게 됐다. 현재 포항~부산간 육상운송 비용은 20피트 기준 28만원선이지만, 연안피더션을 이용할 경우 화주 인센티브를 포함해 24만원으로 물류비를 15%가량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체계의 다양화로 포항지역 수출·입 업체의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와 대구·경북 수출·입기업의 항만 선택 폭도 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첫삽’

포항시는 12월 16일 공강천 현장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공강천 생태하천은 사업 완료 후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올해 4월부터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선사업지구대상으로 공강천을 적극 추천, 사업지구로 선정 받아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올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17억원을 들여 공강천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 하천 환경 정비구간은 총 10.6km로 생태복원구간, 생태친수구간, 생태보전구간 등 3개 구간을 테마별로 나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동빈부두, 새얼굴로 시민 곁으로 성큼



포항시는 12월 21일 동빈부두 정비사업의 1차공사를 마무리했다. 동빈부두 도로변에는 녹지를 따라 고무칩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와 화강판석포장, 파티알포장, 목재데크 등의 산책로가 조성됐으며, 종려나무와 먼나무 후박나무 소철 등의 상록수가 심어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아울러 밤에는 동빈콘다리점으로 캐스케이드, 계류, 막구조 파고라와 조형소나무가 LED조명 불빛에 어울리면서 낭만적인 해변도시의 모습을 물씬 풍긴다.

포스코파워,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투자

포항시는 12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스코파워(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간 포항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수소연료단지 시범타운 조성 등을 위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식 포스코파워(주)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포스코의 발전전문 자회사인 포스코파워는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에 오는 2020년까지 미국 FCF사와 조인트 벤처 등의 형태로 2천880억을 투자한다.

포항시 국제화업무에 힘 실은 조직개편

포항시에 국제화 전략본부와 복지환경국이 생기고 국제 협력팀과 녹색성장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와 기업유치과가 신설되었다. 포항시는 1본부와 1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2팀 3과를 신설하

는 한편 1담당관 7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기구 조직 개편안이 구립 12월 23일 포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부로 개편하였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날로 증대되는 포항시의 국제화 업무와 글로벌 마케팅 업무에 힘을 실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핵심 부서가 폐지되면서 국제화전략 본부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 등 기존 1본부 4국 6팀 25과이던 조직은 1본부 4국 5팀 26과로 1팀이 줄고 1과가 늘어났으며 담당은 152담당으로 변동이 없다.

포항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우수’

포항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반행정 구 단위를 포함 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현지평가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평가는 사업의 실제성과 계속성, 주민의 편의성 및 이용 빈도, 단체장의 추진의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평가에서 포항시는 단체장의 현장방문, 체험 등 참여도와 친서민 생산적 사업 발굴, 사업결과물의 수혜도 평가항목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포항, 세계수소 연료전지산업 메카로 육성

포항시가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연료전지 분야에 기업지원사업으로 포항테크노파크 42억원과 R&D사업으로 포스코 파워 등 3개 기업에 국비 12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업지원사업 및 R&D 사업으로 포항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신청과제 4건이 선정됐다. 그동안 포항시는 산·학·연·관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기획단을 운영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내 R&D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분야의 새로운 과제 16건을 발굴해 제안했으며, 이중 부하추중 백업용 연료전지시스템개발 등 4건이 이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새천년기념관, 새천년의 꿈 담아 개관



새로운 천년 포항의 꿈을 담은 포항 새천년 기념관이 구립 12월 28일 문을 열었다. 포항시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주요기관단체장, 시민 등 1,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패의 지신밟기 흥이 새천년기념관의 건립을 알렸고, 안상찬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의 경과보고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 상옥슬로우시티 얼음썰매 체험장 개장



구립 12월 27일 개장한 포항시 상옥슬로우시티 얼음 썰매장에 개장당일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8천m의 얼음판을 뜨겁게 달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구로 알려진 상옥슬로우시티는 벼를 수확한 논에 물을 담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얼음 썰매장을 열어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다. 슬로우시티 썰매장에는 전통썰매 800대를 대여하고 있고, 쌀로 만든 간편한 음식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어묵과 음료 판매장을 마련하고 있다. 상옥 슬로우시티 썰매장은 오전 10시~오후 5시 개장하며 썰매 대여료는 3천원이다.

▶▶▶ 대보면이 호미꽃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포항시 남구 '대보면'이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 새해부터 '호미꽃면'으로 바뀐다. 포항시는 1일 호미꽃면사무소에서 포항시장을 비롯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 최용성 포항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미꽃면사무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지난 10년간 호미꽃 일대 관광지 개발에 따른 호미꽃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는 자신감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이다.

▶▶▶ 포항시, 에너지절약 총력

포항시가 2010년도 에너지절감 목표를 전년 대비 3%에서 10%이상으로 높여 추진하기로 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올해 시가 추진하는 그린웨이 포항 정책에 박차를 맞춰 올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높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진중이던 점심 및 야간시간대 일제 소등과 휴게실, 화장실, 지하주차장 센서등 자동점멸과 함께 올해부터는 LED조명 교체사업과 청사내 태양열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 등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내 냉·난방온도 1°C더 절감하기, 내복입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침몰 유조선 '309경신호' 잔존유 회수 착수

1988년 2월 24일 대보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309경신호가 침몰된 지 20여년 만에 잔존유 회수에 나섰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침몰 유조선 '309 경신호'의 잔존유 회수를 위한 추정사

업비 256억원 중 올해 국비 60억원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항시는 사고 유조선박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시켜왔으며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펼쳐왔다. 사고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잔존유 회수를 위해 2005년도 무인잠수정을 개발해 잔존유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도 370톤정도가 잠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월포해수욕장' 전국 명품해수욕장 특화개발

포항시가 월포해수욕장을 전국 명품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 개발에 나선다. 해수욕장 특화개발을 위해 우선 6개 지정해수욕장에서 지난해 300만명의 피서객중 절반이상인 170만명이 찾았던 월포해수욕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올해 예산 20여억원을 들여 월포해수욕장내 전신 및 통신주 지중화와 보행자 전용데크시설 및 조경시설, 해수욕장 진입로 확보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 포항, 일본 기타큐슈시 '에코타운' 벤치마킹



포항시가 올해부터 시 산하 공무원의 일본 배낭연수시에 기타큐슈(北九州)시의 에코타운을 필수코스라 삼입해 벤치마킹에 나선다. 포항시는 시대적 화두이자 2010년 시정 운영방향 중 하나인 Green-Way 2010을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일본 배낭연수 일정 내에 기타큐슈(北九州)시의 에코타운 방문을 추가해 벤치마킹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기타큐슈(北九州)시는 1963년도에 기타큐슈의 공기가 세계에서 가장 더럽다고 판명이 날 정도로 최악의 불명예를 가졌던 도시였으나, 정부차원의 장기간의 노력 끝에 오늘날 세계적인 환경 모델도시로 급부상중인 도시이다.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식이 12월 22일 오후3시 환호해맞이공원내 중앙공원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관식은 포항시립미술관이 포항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영일만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갈 뜻깊은 행사였다.

▶▶▶ 포항시의회 신년인사회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 5일 오전, 의회 1층 로비에서 전체 의원과 시장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이상득 국회의원, 이상천 도의장 및 도의원, 전직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년 신년 인사회 갖고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 원년을 출발하는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5대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시의회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올해 의정 활동의 화두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고통 경감, 신 빈곤층 복지문제 등 「민생 안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서민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매진한 포항시의회가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09년 모든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21일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포항시의회가 12월 23일 오전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

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제5차 본회의 개의 후, 최용성 의원과 이정호 의원이 차례로 나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평소 소신과 '포항의 정신문화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제4차 본회의 이후 처리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이동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또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남부경제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경제권 경제발전을 위한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청와대 등 관계 요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는 2009년 총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95일의 회기일수 동안 132건의 안건(조례안 59, 예·결산안 5, 건의·결의안 1, 동의·승인안 8, 기타안건 59)를 처리하고 95건의 시정질문과 2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실적과 함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 포항시 2010년도 예산 1조 403억원 확정

포항시 내년 예산이 시승격 60년 만에 당초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섰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보다 3.3% 증가한 1조 1,597억원으로 편성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0.6% 증가한 1조 403억원으로 편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어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또는 수정의결 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포항이미지 홍보' '포항 CI 홍보' '관광축제 홍보 프로그램 유지' 등 홍보성 경비와 '용흥동 체육공원 조성' '북부해수욕장 전망대 설치공사 시설비' 및 '2010 포항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등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는 등 총 55억 9천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학산도 도시계획도로(중1-30) 개설공사'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간 도로(광3-4) 개설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27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밀양시가 타당하다는 결의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항의 밝은 미래 -
포항시의회가 열어갑니다!
council.ipohang.org

장애편인·유공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대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가족(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및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준비서류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지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등록증, 수급자증명서
 - ※ 할인혜택은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교통 안전 수칙

- 야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밝은색의 옷을 입고 외출
- 야광띠 부착된 의류나 신발, 가방 소지시 적극이용 권장 (농촌지역 등 국도변 보행시 특히 권장)
- 운전자가 잘 발견 할 수 있도록 조명이 밝은 곳으로 횡단
- 밤에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감각이 더 둔하기 때문에 거리의 여유를 두고 횡단
-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한다.
- 신호등을 확인한 후에도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건넌다.
- 초록불이 깜박일 때에는 횡단하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 외출할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외출한다.
-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사선이 아닌 직선으로 횡단한다.
-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0. 1. 4~31
 - 신청장소 : 구청 세무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 상 자 :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희망자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어도 고지서 발송
 - 해 택 :
 - 기존에 6월, 12월에 나누어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치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 2009년식 쏘나타(1998cc) 자동차의 경우 51,500원 할인혜택
- [문의 : 남구 270-6244, 북구 240-7244, 읍·면·동사무소]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0. 1. 16~31
- 납 세 자 :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

- 정, 검사, 검열, 심사 등에 따른 면허 보유자
 - 납부세액 : 면허종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음
 - 동지역 : 5,000원~30,000원
 - 읍면지역 : 3,000원~18,000원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대, 삼성, 비씨), 위택스(www.wetax.go.kr), 포항 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
- [문의 : 남구 270-6231, 북구 240-7231, 읍·면·동사무소]

제10회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 참가 접수

- 일 시 : 2010. 3. 27(토) 08:00 (식전행사 08:00, 출발 08:30)
 - 장 소 : 포항시 종합운동장
 - 코 스 : 종합운동장(출발)~형산교차로~강변로(해도)(5km 반환점)~송도해수욕장(10km반환점)~동빈큰다리~동빈부두로~북부해수욕장~북부해안로(환호해맞이 공원)~여남방파제(하프반환점)
 - 종 목 : 5km건강달리기, 10km단축마라톤, 하프코스 마라톤 (21.0975km)
 - 참가비 : 1만원(5km, 초중고생 5천원), 2만원(10km, 하프)
 - 참가신청 : 2010. 2. 11(목)까지
 - ※ 신청접수자가 선착순 10,000명 이상일 때는 접수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http://festival.ipohang.org 또는 http://www.pohangsports.or.kr (참가비를 온라인 입금 후 신청)
 - FAX접수 : 054) 277-8957 (신청양식이나 접수증을 받아 입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
 - 직접접수 : 각 읍면동사무소, 포항시체육지원과, 포항시체육회 사무국(각 읍면동에 비치된 접수증 작성 후 온라인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접수)
 - ※ 승용차(모닝) 1대 등 다양한 추첨경품이 있으며, 포항시홈페이지(축제포털 해변마라톤대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포항시체육회 274-2757, 체육지원과 270-2791]

포항스틸러스 사랑 『시즌카드』 판매

- 판매금액 : 1장 4만원
- 카드사용 : 연간 20회 축구전용경기장 입장권(20만원 상당 입장가능금액)
- ※ 1카드 1장으로 20인 이내 동시입장 가능
- 구입방법 : 스틸러스홈페이지 또는 판매지원

2010년 「선거아카데미」 개최 안내

- 2010년 지방선거(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포함)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운동관계자를 위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 1. 26(화) 10:00~

- 장 소 : 포항시청 별관 문화복지동 강당
 - 대 상 : 2010년 지방선거(교육감·교육의원선거 포함)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운동관계자(예정자) 등
 - 지 역 :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 내 용 : 입후보 준비,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효과적 인 선거캠페인 기법, 위법행위 단속방침 등 전달
- [문의 : 포항시남·북구선관위 256-3939, 254-3939]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조정

- 관련규정 :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 내 용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20,000원/톤, 30,000원/톤
 - 공시장생활계폐기물
 - 폐콘크리트, 토사류 : 25,000원/톤, 35,000원/톤
 - 혼합폐기물 : 50,000원/톤, 70,000원/톤

연탄재 배출 방법 변경

- 기 존 : 모든 연탄재는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배출
- 변 경 : 상가 등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 사용,
- ※ 가정,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은 기존 방법대로 배출

산림청에서 산을 매수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관련 법률에 의거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유림매수를 추진하고 있사오니 경주, 영천, 포항, 영덕, 영양, 청송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는 산주들께서는 임야를 처분하시고자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영덕국유림관리소로 연락주시시오.

[문의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계 054)730-8120~8122]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 연장 운영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통을 지역에서 해소해 주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하여 시청1층 종합민원실 내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를 금년 12월 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층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낮춰주는 전환대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대출), 창업·복지·취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서민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종합상담 창구 방문 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대상자 여부 및 준비서류 등을 확인 후 방문하십시오.

[문의 : 신용회복지원콜센터 1588-1288, www.hopenet.or.kr]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정 변경

- 대 상 : 만 65세 이상 건강노인 및 만성질환자(신분증지참)
- 기 간 : 2010. 2. 1 ~ 2. 17
- 변경 접종 일정표

	읍면동	접종예정일	접종장소	비고
남	구룡포읍	2. 3 ~ 5	구룡포보건지소	백신배정 방문접종
	연일읍	2. 3 ~ 5	연일보건지소	
	오천읍	2. 1 ~ 4	오천보건지소	
	대송면	2.10 ~ 12	대송보건지소	
	동해면	2.10 ~ 12	동해보건지소	
구	장기면	2.10 ~ 12	장기보건지소	이동 보건소 운영
	대보면	2.10 ~ 12	대보보건지소	
	상대동	2. 11	상대동사무소	
	해도동	2. 3	해도동사무소	
	송도동	2. 10	송도동사무소	
	청림동	2. 17	남구보건소	
	제철동	2. 1		
	효곡동	2. 16	효곡동사무소	
	대이동	2. 12	대이동사무소	
	북	홍해읍	2. 2 ~ 2,5	
신광면		2. 2 ~ 2,4	신광보건지소	
청하면		2. 2 ~ 2,4	청하보건지소	
송라면		2. 2 ~ 2,4	송라보건지소	
기계면		2. 2 ~ 2,4	기계보건지소	
구	죽장면	2. 2 ~ 2,4	죽장보건지소	리별로 일정다름
	기북면	2. 2 ~ 2,4	기북보건지소	
	장량동	2. 1	북구보건소	
	두호동	2. 2		
	환여동	2. 3		
	우창동	2. 4		
	용흥동	2. 5 ~ 2. 8		
	죽도동	2. 9 ~ 2.10		
양학동	2. 11			
중앙동	2. 12 ~ 2.16			

2010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 융자대상 : 지원으로 농어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융자조건 : 가구당 3천만원이하/연리 3%(연체시 연 10%)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
 - 신청기간 : 2010. 1. 15 ~ 2. 25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의 : 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455]

지난달 열린포항 10페이지에 기재된 국립등대박물관의 개관 시간을 정정합니다.

- 화~금요일 09:00~18:30
- 토요일 및 연휴기간(마지막날 제외) 3~10월 9:00~19:00
11~2월 9:00~18:00
- 입장마감-종료 30분 전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재일교포 이부철 포항시 홍보대사(일본 카나가와현 민단본부장)가 13일 필로스호텔에서 장애인 200여명을 초청해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연말연시를 쓸쓸히 보내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와 장기자랑을 비롯해 섹스폰 연주와 기념품증정,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또 경북지체장애인협회포항시지회를 비롯해 포항시 5개 장애인 단체에 300여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씩을 증정했다. 이부철 홍보대사는 “일본신문에서 공무원 일본연수, 일본인가육거리, 일본인 관광객 1만명 유치 활동에 대한 포항시의 정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번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부 지적장애인들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런 행사를 마련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부철 홍보대사에게 작지만 감사의 뜻을 담아 직접 제작한 기능성 비누를 선물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요코하마에서 세리사(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부철 홍보대사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매년 일본내 장애인들을 초청해 파티를 열었으며, 2006년 서울 노원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성탄축제를 여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많은 자선을 행해 왔다.



카나가와현은 도쿄와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와 세계적인 온천관광지 하코네가 어우러진 일본의 중심지역이며 카나가와현의 소속 민단 회원은 2만여명을 넘을 만큼 큰 규모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부철 홍보대사가 지난달 2일 포항을 방문해 윤정용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포항세서의 장애인 자선 행사 개최를 제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함께 해요

포항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계섭)는 12월 16일 무의탁노인 51세대와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었다. 이날 전달한 김치는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80여명이 지난 12월 14일부터 3일간 작업해 만든 것으로, 세대당 20kg의 김치를 개별 포장한 것이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이웃사랑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연 수익금과 포스코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 포항시 공무원, 사랑의 정 나눔 선행



포항시 공무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환경 정비, 목욕서비스, 식당급식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따뜻한 연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포항시는 31일 종무식 전까지 장애

인, 노인, 부랑인, 여성복지, 아동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방문한다는 계획 아래 실·팀·과·소 별로 나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28일 흥해읍 소재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향기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체조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날 미래산업 및 항만정책팀은 동안면 공단리의 손안애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말동무가 돼주고, 요양원 내 유리창을 청소하는 등 시설환경을 정비했다. 또 29일에는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과일과 떡 등을 준비해 대잠동 성모병원 내 햇빛마을을 방문, 요양시설에서 외로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라' 황소저금통 개봉

포항시청 직원들이 지난한해 동안 훈훈이 모은 황소저금통이 개봉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31일 시청 문화복지동에서 박승호포항시장을 비롯한 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종무식을 갖고 황소저금통 1,800개를 개봉했다. 각부서장들이 돌아가면서 저금통을 개봉하는 릴레이 개봉행사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저금통마다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이 들어 있었으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공개됐으며 동전이 쏟아져 나올 때 마다 직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와 열기를 더했다. 직원들은 특히 자신이 모은 동전 한푼 한푼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이나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 뚫듯해 하기도 했다.



[제목] 부자마켓, 2009 | 크기 | 80.31 X 116.7 cm | 재료 | 캔버스에 유채



이종길

1974생, 국립청원대학교 서양화과, 계명대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21C청년작가 시대와 정신전 / Summer Festival 지역대표작가 기획초대전 / 한·중 미술교류전 / 남부지역구상회화제 / 포항아트페스티벌 / 형상의 맛과 멋 100호전 / 영암미술관 개관전 / Beautiful Asia / 천) 한국미술협회, 현상회, 포항청년작가회, 인물작가회 회원

마음속의 풍경

동양에서는 예부터 사상이나 감정을 자연에 은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산수화가 발달해 왔다. 서양에서 풍경화가 그림의 독립된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은 17세기부터이며 터너와 콘스터블을 거쳐 19세기 후반 인상파의 등장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종길은 안개가 자욱한, 혹은 황사 바람이 몹시 부는 4월 거리 풍경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도시의 일상을 그린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풍경이라기보다, 마치 문명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립된 섬처럼 무채색의 화면이 온통 연초록의 나무를 에워싸고 있다.

비슷비슷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그는 대상을 눈앞의 존재로만 보지 않고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조건과 관계지음으로서, 일상의 풍경을 우리의 심연에 가라앉아있는 또 다른 대상의 존재로 탈바꿈 시킨다. 그는 '그리기' 라는 회화 고유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통 풍경화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풍경의 언어와 미감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